

전남 양식어업 지난해 연 매출 4000억원 돌파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 지1년 전보다 34% 1079억 증가 생산량 2만2583t 역대 최대...올해 2분기 매출액 920억 육박

전남 양식어업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처음 4000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양식 어가들의 출하 의향이 증가하면서 생산량과 생산금액 모두 증가했다.

4일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양식어업 매출은 4308억5000만원으로, 관련 통계를 낸 2010년(2953억7800만원) 이후 처음 4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양식어업 매출은 전년보다 34.2% (1097억5700만원)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양식어업 생산량은 전년보다 3.7% (1036t) 증가한 2만2583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단 올 2분기 양식 생산량은 전년보다 소폭 (-2.3%) 감소한 5941t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식 생산량과 매출 증가세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마저 오르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른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4~6월) 양식어업 매출액(생산금액)은 919억1400만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889억400만원)보다 3.4%(30억1000만원) 증가했다.

양식어업 매출은 제주도가 995억300만원으로,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 양식어업 매출은 전국의 29.4% 비중을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2분기 기준 전남 양식어업 매출액은 612억 6100만원(2020년)→889억400만원(2021년)→919억1400만원(올해)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 2분기 전남 양식 생산량을 양식방법별로 보면 해상가두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45.2% 급증했지만, 육상수조식은 26.4% 증가하며 생산량 격차를 벌렸다.

'해상가두리'는 바다 위에 그물망을 설치해 어류를 길러서 거둬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육상수조식'은 육지 위에 인위적으로 수조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끌어 올려 어류를 기르는 방식을 뜻한다.

올해 2분기 전남 육상수조식 생산량은 4611t으로, 전체(5941t)의 77.6% 비중을 차지했다.

1년 새 육상수조식 생산량은 3648t에서 4611t으로, 26.4%(963t)나 증가했다. 반면 해상가두리 생산량은 지난해 2분기 2414t에서 올해 2분기 1323t으로, 45.2%(-1091t) 감소했다.

연안 지역 해안선이나 육지부에 제방을 쌓는 '축제식' 생산량은 지난해 2분기 17t에서 올해 6t으로, 64.7%(-11t)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남 양식 경영체는 550개로, 전국(1538개)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520개·33.8%), 제주(271개·17.6%), 충남(88개·5.7%), 경북(69개·4.5%) 순으로 나타났다. 양식어업 종사자 수도 전남이 1619명으로, 전체(4680명)의 33.3% 비중으로 가장 컸다.

단 전남 양식 경영체는 전년보다 5.7% 감소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저·고수온 영향으로 해상가두리 경영체가 전년보다 33개(-8.6%)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병우 서광주농협조합장 '함께하는 조합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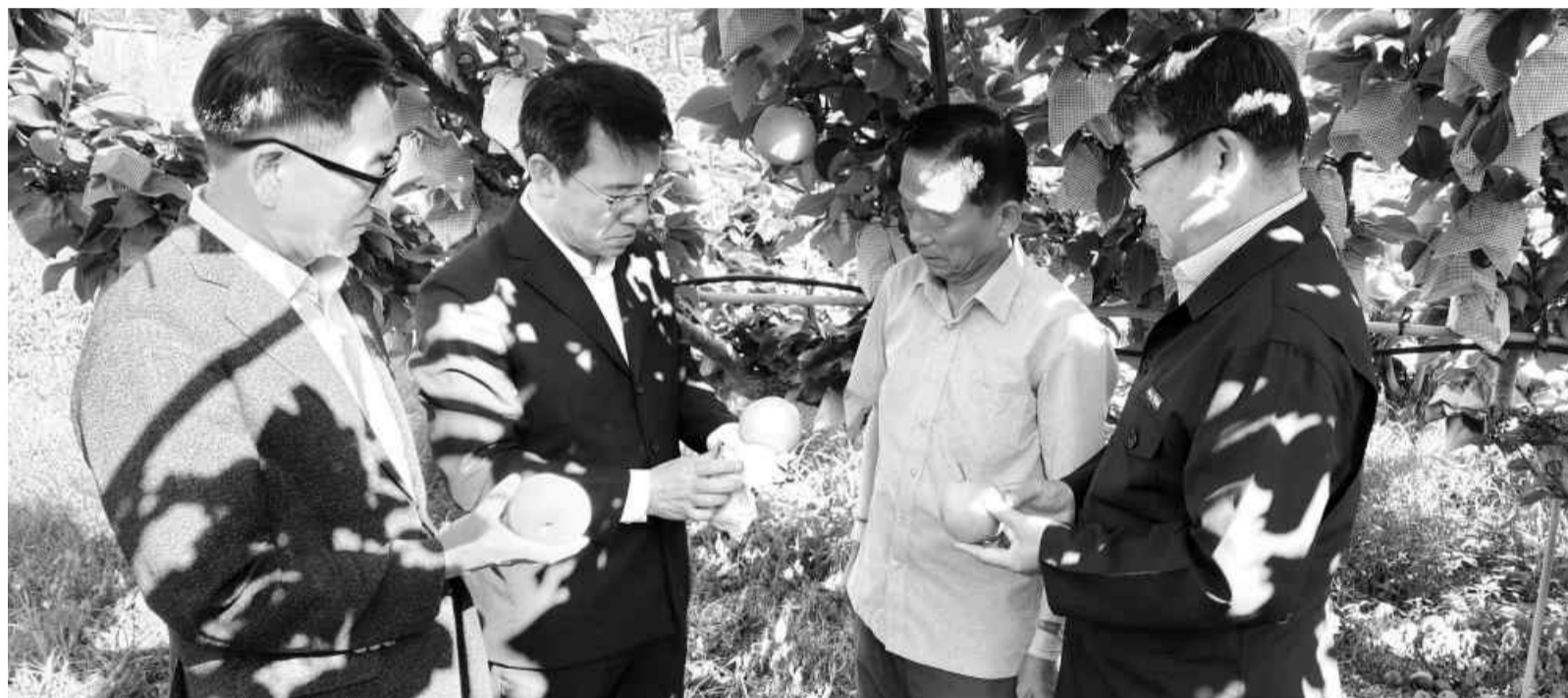


농협 광주지역본부 문병우(사진) 서광주농협 조합장이 최근 농협중앙회로부터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조합장은 도시와 농촌 농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농 상생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5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조합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문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서광주농협 조합원과 고객, 일선에서 역할을 대해준 임직원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 구실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남노' 대비 긴급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두 번째)는 최근 신안 배 재배농가를 찾아 11호 태풍 '한남노' 상륙에 대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전남농협은 재해 발생 때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농업인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한 재난구호물품 꾸러미를 마련해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부부 2쌍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에 광양원에농협 조합원 김재열·김영아씨 부부와 화순축산농협 김성동·박지연씨 부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열씨 부부는 광양시 진상면에서 황금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귀농해 현재 5620㎡(1700평) 온실에서 애호박과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농업 교육을 지속해서 이수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왔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 비결을 공유하고 재해 복구 지원과 지역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 도곡면에서 해피목장을 운영하는 김성동씨 부부는 낙농 20년 경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124두의 젖소 사육에 대한 영농·방역일지를 작성하며 철저한 계획 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왼쪽부터 김재열·김영아씨, 김성동·박지연씨 부부.

사료작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낙농기술을 후계 낙농인에게 전수하는 선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았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시상한다. 매달(1월, 8월, 12월 제외)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비축 수산물 1000t 집중 방출

오늘부터 수산물 최대 30% 할인 농림부,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도

정부가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20~30% 할인 판매하는 가운데 5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내놓는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일주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최대 1000t까지 시장에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 332t, 오징어 202t, 고등어 107t, 갈치 165t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5일, 전통시장은 6일부터 이들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추석 3주 전인 지난달 18일부터 정부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농산물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3.1배 수준으로, 평시 9만5000t보다 51.3% 많은 14만4000t

규모다.

특히 배의 경우 명절 수요량(5만6000t)의 21% 수준인 농협 계약물량 1만2000t을 성수기 동안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으로 대형마트와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전국 2952개 매장에서 14개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20~30%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설도, 양지), 돼지고기(삼겹·목살, 갈비, 앞다리), 닭고기, 달걀, 밤, 대추, 잣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석 직거래 큰 장터' 성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오른쪽 두 번째)와 광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수관·가운데)은 지난 1일 '추석 명절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를 열고 지역 15개 농·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특산물을 10~30% 저렴하게 판매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A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